

# 캠퍼스 커리어 타운 형성과 대학경쟁력

유 할 산 |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대학 주변 타운과 대학 캠퍼스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자연스러운 상생 관계에 있다. 이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프로젝팅(projecting)하게 된다. 가령 대학 강의실과 대학 주변의 활용 개발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공간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얼마나 강의실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까? 또는 이러한 대학 주변의 공간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캠퍼스 커리어 타운'(Campus Career Town)으로 형성한다면 얼마나 대학 캠퍼스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전제로 하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2002년 10월 21일 국내컨퍼런스와 12월 26일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주제('각급학교와 대학간 연계정책 대안(I)(II)')에서 제시했던 연계틀(8가지 전략적 브랜드群 참조)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질문이며, 동시에 대학 캠퍼스와 대학 주변의 공간들이 연계되었을 때 경쟁력 요소(competitive factors)를 자생시키는 '캠퍼스 커리어 타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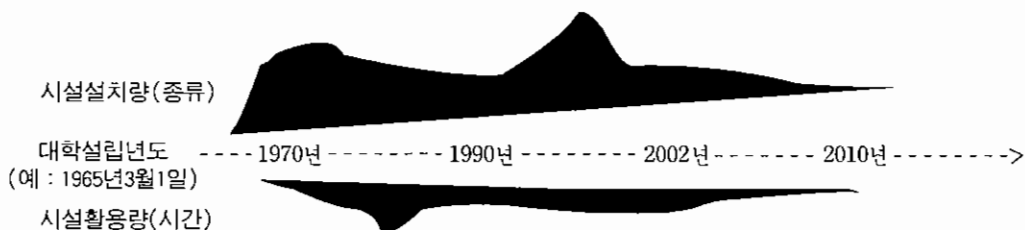
## II. 캠퍼스 커리어 타운의 형성

### 1. '대학 주변 타운' 과 '대학 캠퍼스' 간의 상생 전환점

'캠퍼스 커리어 타운'이란 대학 주변의 타운을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의 커리어처럼 그 타임 라인(time line)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아가는지를 시설의 차원에서 장기적·연속적으로 설계하여 가는 타운을 말한다((그림 1) 참조).

이 설계는 톰 디마르크와 티모시 리스터가 Peopleware 에서 소개한 건축가이자 철학자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시대를 초월한 변함없는 건축법, The Timeless Way of Building』과 상통하는 설계이다. 그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은 가장 잘못된 방법이다... 활력있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조화로운 공간은 그런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다. 마스터플랜은 강철과 콘크리트 경간(기둥과 기둥, 교각과 교각 사이에 넣어 연결하는 부분)을 사용하여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며, 모듈식 공간을 같은 모양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로 전체공간을 만든다. 그 결과 그 건물을 찬양하는 인물을 빼고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삭막하고 획일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정 부분은 타운 시설, 흰 부분은 대학내 시설)



\* 출처 : 유향산 개발

(그림 1) 대학커리어 : 시설 타임 라인(University Career : Facilities Time Line) 모델

알렉산더는 마스터플랜 대신에 '변화플랜'을 제안하였다. 이 플랜에 따르면, 어떤 시설물이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마치 생물이 진화하듯이 성장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Marco & Lister, 1999)

필자의 '계속플랜'과 알렉산더의 '변화플랜'은 '진행플랜'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동시에 그 타운을 테마별로 다양하게 설계하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의 기능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변 공간을 적어도 대학캠퍼스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간 소유주에게 대학에서 부여하는 명예를 걸고, 그들이 주변 공간을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게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다. 명예를 부여받은 주민들 가운데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명예 사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고, 기업경영주의 경우에는 「명예 CEO」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이들은 대학측과 함께 공간을 운영하면서 계속 개인소유 시설·타운소유시설·대학소유시설 등의 운영 및

그 설계에 대한 커리어를 계속 설계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 주변의 '캠퍼스 커리어 타운'은 필자가 소개하는 8가지 테마별 타운으로 나뉘어 이들이 소위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하나의 브랜드 자산(brand equity)<sup>1)</sup>의 역할을 하게 되는 전략적 브랜드군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첫째 기숙사 공간으로서의 주택 건물, 둘째 봉사활동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 셋째 시장공간으로서의 상품현장(products-field), 넷째 시민교육공간으로서의 각종 학교 연계건물, 다섯째 시민이 알아야 할 공공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건물, 여섯째 산·학·연 협동 공간으로서의 컨벤션홀, 일곱째 정보 창출 공간으로서의 현지타운, 여덟째 노인을 위한 재교육공간으로서의 자연원 등이다.

이러한 주변 공간과 대학 캠퍼스 공간 사이에서 학생들은 주민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정보를 거쳐서 무형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공유형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화폐화(貨幣化)시키는 이력을 쌓아가게 된다. 이때, 만일 이들이 상

1) David A. Aaker (1991), *Managing Brand Equity*, (New York : The Free Press), p.7 에서 다음의 개념을 참조하고 있다. (A brand is a distinguishing name and/or symbol (such as a logo, trademark, or package design) intended to identify the goods or services of either one seller or a group of sellers, and to differentiate those goods or services from those of competitors.)

호 연계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양쪽 변수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또다른 변수들로 변질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학 주변도, 대학 캠퍼스도 모두 슬럼가로 변하게 된다.

대학이 설립 당초부터 어떠한 변수들로 캠퍼스를 만들어오고 있었는지 '소위 대학 커리어 타임 라인'(university career time line)에서 그려지는 곡선의 폭을 보면 어떤 시설이 발전되어왔고, 어떤 시설이 없어졌는지를 그 주변 지역의 커리어 타임 라인(community career time line)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말하자면 캠퍼스 내의 건물들과 시설들을 어떻게 신축 또는 개축을 하면서, 또는 주변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느냐 하는 캠퍼스 시설 커리어 타임 라인은 그 주변 시설 커리어 타임 라인과 같은 흐름이라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앞에서 지적한 대로 서로 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슬럼가로 변하고 있다고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과 오히려 관계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을 상생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연구해야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대학간 경쟁력은 '더 좋은 대학'보다 '전혀 다른 대학'을 창조해 낼 때에만 그 대학 주변 타운을 살릴 수 있고, '더 좋은 대학 주변'보다 '전혀 다른 대학 주변'을 창조해 낼 때에만 대학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첫째, 바로 지금이 이러한 대학 주변 타운을 연구해야하는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둘째 '캠퍼스타운형'을 대학 경쟁력의 포지션(position)으로 브랜딩(branding)하는 모델 8가지를 제시하며, 셋째 이를 계속 프로젝트링(projecting)하는 연구센터를 대학 주변의 다양한 생활 테마 영역별로 분산시켜 타운이 그 기능을 한

다는 것을 알리며, 넷째 그 결과로 앞으로 이 테마 별 타운들이 대학과 함께 대학 주변에 맞는 타운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창안해낼 것이라는 점, 다섯째 특히 대학 당국은 대학 주변 주민들과 함께 가까운 주변과 먼 주변의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도 함께 한다는 점 등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 2. 대학 주변 타운 연구를 위한 전환점

바로 지금이 대학 주변 타운을 연구해야 하는 전환점이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혀 없었던 변화를 겪게되는 시점이 바로 21세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틀은 완전히 새로운 틀로 바뀐다는 것이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의 예측이다. 특히 그가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에서 지적한 대로 "젊은 인구의 감소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다. 성인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3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인구도 사회인구도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중요하고 새로운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젊은층을 위한 시설에서부터 노년층을 위한 시설이 대학이나 대학 주변에 주류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틀 속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하는 전환점에서 있는 대학과 대학 주변이다.

현재 우리의 대학을 가까운 주변과 먼 주변의 변동에 대한 정보와 연계해서 평가해 보면, 대학 주변 정보의 연속적인 변동과는 무관한 물리적 타운에 둘러싸여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대학들은 캠퍼스 내에 최첨단기술들을 설치하면서 주변 타운의 시설과 연계시키는 데는 전혀 적극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대학 주변 시설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은 학교생활보다 주변생활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시설에 더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 강의실(간접정보 전달장소)과 대학 주변 타운(창출정보 검증장소)을 연계시켜 학생들이 좀더 경제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 21세기에 어울리는 대학이다.

2003년 세계전망을 보면, 역시 물리적으로 대학과는 먼 주변의 변동에 대해서 이를 다룰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대학 주변의 캠퍼스타운이 불가피하다. 2003년 현재 세계 주요 변동의 추세 가운데 주로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 사회의 질적 변화, 동북아지역의 변동,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들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대학 강의실에서 얻는 정보보다 물리적으로 자신이 대학에서 먼 주변과 가까운 주변인 8가지 테마별 타운에서 정보 창출 현장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의 캠퍼스타운을 형성한다는 것은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는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해 외과의 전공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새롭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지금까지 외과 전공 학생들은 레지던트 마지막 과정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실상 외과 수술을 볼 수 없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수술을 하고 있는 외과의사들의 등만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젊은 외과의사들은 수술 기법을 배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수술 연습을 할 수 있

고, 게다가 가상현실을 이용해 환자를 다치는 일도 없이 실습을 할 수 있다." (Drucker, 2002).

이것은 드디어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금까지의 강의실식 정보 전달 방식과는 전혀 다른 타운형 정보 창출 방식을 갖게 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대학 전반에 걸쳐서 대학이 주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창출 기회 제공이라는 자세로 바뀌는 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각국 A, B, C 대학을 연계하면서 동시에 각 대학 주변의 8가지 타운 a, b, c, d, e, f, g, h를 연계하면 각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IA(Information from A), IB, IC 등과 각 대학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창출된 정보 ia(information from a), ib, ic 등을 합하면 결국 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는 무형지식을 축적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동시에 이를 화폐화할 수 있는 유형자산화가 가능한 정보획득시스템이 '21세기 맞춤형 정보시스템'으로 개발될 것이다.

### Ⅲ.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캠퍼스 타운형 모델

#### 1. 대학의 포지션 형성을 위한 모델

현재 우리는 기존 행정타운의 이전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앞에서 언급했던 8가지 대학 주변의 캠퍼스 타운들 가운데 하나인 '시민이 알아야 할 공공 공간으로서의 관공소'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만일 서울에서 행정타운이 이전된다면 '서울은 또 다른 타

운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행정타운이 서울에 있는 모든 타운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심지어는 다른 먼 지역의 타운들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타운'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소멸되는 자연현상이다. 마치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영원히 제거된 부분과 똑같은 부위가 생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제거된 타운 자리에는 또다른 타운들이 생성되어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학 주변의 캠퍼스타운 생성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동시에 대학의 생성력도 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경쟁력'이라는 과제를 연구할 때에는 우선 대학 주변의 자연생태적인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반드시 지금에 위치한 대학들이 그러한 자연생태적인 차원에서 적절한지는 논의로 하더라도 앞으로 거론될 수 있는 과제이다.

타운군 속에는 주택타운, 교회타운, 행정타운, 자연타운, 학교타운, 상가타운, 국제타운, 노인타운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운들은 쉬지 않고 생성된다. 가령 어떤 특정 지역에 기존의 형태인 주택타운이 없어졌다 하자.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이상하게도 새로운 유형의 주택타운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지역에 기존 행정타운이 없어졌다해도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타운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결론은 어느 한 지역의 타운이나 대학은 그 지역의 자연생태에서 발생한 타운일 뿐, 이 타운이나 대학이 전혀 다른 지역의 타운이나 대학을 대표하지

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운들은 결국 대학의 포지션을 형성해 가는 중추적 브랜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 내부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대학 주변으로부터 대학의 경쟁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본다.

## 2. 대학경쟁력을 자생시키는 다양한 브랜드 자산

대학의 역사는 세기마다 전혀 다른 다양한 창조적 운영 기술을 발휘하여 중세 대학에서부터 대학의 맥(academic freedom)을 오늘에까지 이어주고 있다(이석우, 1999). 한편 이러한 창조적 운영 기술로 '미래대학'을 향해 이 맥을 계속 이어주는 산실 역할을 한 하버드대학도 역사성을 띤 중세 대학과는 전혀 다른 창조적 정보 매체 및 창출된 정보 환경을 대학 주변에 캠퍼스타운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양한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이 되고 있다.

리처드 라이트(Richard J. Light) 하버드대 교수는 학생들과의 대담에서 그들이 대학생활을 통하여 교수가 전달한 '무형 지식의 유형 자산화(이력 쌓아가기)'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대학과는 전혀 다른 창조적 수업 운영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한 학생들의 체험담을 그의 연구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다.<sup>2)</sup>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운영 기술이란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 좋은' 운영이 아니고, 한 번도 없었던 '전혀 다른' 운영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더 좋은' 대학으로 운영하는

2) Richard J. Light (2001), *Making The Most of College Students Speak Their Mind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owerful Connections' pp.13~22, 'Suggestions from Students' pp.23~44, 'The Most Effective Classes' pp.45~80. 참조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과는 물론 다르고 자신의 '어제 대학' 과도 전혀 다른 '오늘 대학' 이 바로 '경쟁력 있는 대학' 이라고 보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혁명 기수 MIT - 2천개 강의 인터넷 통해 무료제공", "MIT 대표연구소 '미디어랩' - 차(car) 크기 내 맘대로 늘리고 줄이고", "음악이론 몰라도 작곡·연주 가능 - 디지털 세계 미래 개척" (한국경제, 2003. 2.10.(월)) 에 관한 정보를 듣고 그렇지 못한 대학들은 자신들의 대학이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는 부담감과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경쟁력은 비교하기 위한 경쟁력이 아니다.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의 시설운영 기술을 모방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다. 모방은 전혀 다른 창조적인 운영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대학' 은 작은 대학 운영 기술을, '큰 대학' 은 큰 대학 운영 기술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이제 우리는 대학 수만큼 서로 다른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각기 서로 다른 수준의 대학과 주변 캠퍼스 타운을 갖추어야 한다.

#### IV. '캠퍼스 커리어 타운' 의 설계

'캠퍼스 커리어 타운' 설계 방식은 앞에서 소개된 알렉산더의 유기적 건축양식 방법인 '변화플랜' 에다 필자가 개발한 인간 커리어 과정에서처럼 그 과정 사이사이에 항상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새롭게 변화 설계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변화플랜 하에서 시설물들은 일련의 소규모 단계들을 거쳐서 캠퍼스나 주건물에 딸린 관련 기관들로 진화한다 (DeMarco & Lister, 1999). 동시에 공통의 디자인 규칙을 지킴으로서 그 건물들은 시각적 조

화를 이루지만 똑같은 모양이 되지는 않는다. 마치 오래된 마을처럼 시설물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알렉산더의 유기적인 건축양식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자연스러운, 즉 유기적인 건축 양식은 그 환경을 이루는 개개의 것들과 전체의 필요가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만 만들어진다. 유기적 환경에 있는 모든 장소는 각각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때 어떤 부분도 버려지지않고 전체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 전체는 각 부분에 내재된 개별적 특징을 모두 지니게 된다" (DeMarco & Lister, 1999).

"캠브리지대학은 이런 유기적 건축양식의 훌륭한 예이다. 이 대학에서 가장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은 각 칼리지들이 (세인트 존스, 트리니티, 트리니티 홀, 클레어, 킹스, 피터하우스, 퀸즈 등) 마을의 중심가와 강 사이에 위치한 형태이다. 각 칼리지는 마당이 있는 주택지 모양이며, 마을 거리로 향하는 입구가 있고, 강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각 칼리지에는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있고, 이 다리를 건너면 풀밭이 나온다. 그리고 보트 선착장과 강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이 있다. 이처럼 칼리지의 체계는 모두 똑같지만, 제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당이나, 입구와 다리, 선착장과 산책로의 모양이 모두 제각각 다른 것이다" (DeMarco & Lister, 1999).

#### 1. 대학 - 타운의 개념 설계

##### 1) 연계개념

현재 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의 타운은 제도적으로 상호 아무런 연계도 없는 독립된 개체이다. 이런 상태에서 필자는 '과연 대학 캠퍼스와 대학 주변의

타운이 서로 경쟁력을 높여주는 대안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캠퍼스 커리어 타운' 형성이 이들의 경쟁력을 높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자답을 해 본다.

대학 캠퍼스는 역사적으로 '타운이 곧 대학' 이요, '대학이 곧 타운' 이라는 물리적 미분화 상태에서 출발하면서 그 후 이들은 점차로 분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정한 대학 건물과 기숙사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세 초기의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어떻게 기숙하고, 어디에서 배우고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직접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어디서 먹고 자고 어디서 배우고 가르쳤느냐 하는 것 자체가 대학이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캠퍼스가 곧 타운일 수밖에 없었다(이석우, 1999).

이러한 점에서 초기에 기숙사에 해당하는 시설이었던 홀(hall)과 호스텔(hostel)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학교의 형태를 갖춘, 다시 말해 기숙사와 배움터 역할을 동시에 했다고 할 수 있는 칼리지의 설립 배경에서 그 형성과정을 찾을 수가 있다. 홀(hall)은 13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학생들의 일상적인 주거지였으며, 칼리지(college)는 13세기에 세워졌으나 15, 16세기에 이르러서는 홀(hall)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떠맡으면서 독립적·자율적인 대학단위의 형태를 취했다. 특히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대학(university)이 오히려 이들 칼리지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나라, 그리고 영국 내의 많은 다른 대학과도 차이가 난다(이석우, 1999).

한편 지금과 같이 독립된 개체로서는 서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정 대학과

특정 타운에로의 인구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학 캠퍼스를 울타리 밖으로 넓히고 가운(gown)과 타운(town)이 협업적으로 공존하는 대학촌을 건설해야 한다. 대학이 타운과 경계선을 치고 울타리 안에서 공간난을 해소하려 한다면 대학캠퍼스는 얼마 안가서 슬럼지대로 변할 것이니, 하루 빨리 캠퍼스 개념을 울타리 개념에서 타운 개념으로 바꾸고 기업 및 지역자치단체와 제휴하여 대학 주변 타운을 기존 캠퍼스의 외연으로 재개발함으로써 공간개념을 새로이 창출해야 한다'거나, 또는 '고려대를 예로 든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와 손을 잡고 대광고등학교에서 안암로터리를 거쳐 본교 정문 앞에 이르는 지역과 이공대·의대·정경대·주변지역을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고대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캠퍼스타운으로 재개발해야 한다. 캠퍼스의 타운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부총장(예컨대 사업담당 부총장)제를 신설하고, 하위부서도 새로 편성해야 한다'(김호진, 편, 2001)는 의견도 대학의 타운개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 2) 테마개념

'캠퍼스 커리어 타운'은 유기적 건축양식 방법인 '변화플랜'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이다. 단, 이 플랜에다 필자가 개발한 인간 커리어 타임처럼 그 시간 시간 사이에 항상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설계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단, 이러한 설계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전에 '대학-타운'의 연계개념과 다음에 제시한 8가지 테마개념을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기숙사 공간으로서의 주택 건물의 테마개념, 둘째 봉사활동 공간으로서의 교회건물의 테마개념, 셋째 시장공간으로서의 상품필드(products-

field) 테마개념, 넷째 시민교육공간으로서의 각급 학교 연계건물 테마개념, 다섯째 시민이 알아야 할 공공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건물 테마개념, 여섯째 산·학·연 협동 공간으로서의 컨벤션홀테마개념, 일곱째 정보 창출 공간으로서의 현지타운 테마개념, 여덟째 노인을 위한 재교육공간으로서의 자연원 테마개념 등이다.

## 2. 대학-타운간 테마로 연계된 설계

유기적 건축양식에 의한 설계 모델 8가지의 영역을 하나로 연결하면 하나의 유기적인 자연스러운 도시 대학과 테마로 연계된 타운이 형성된다. 이것이 바로 '캠퍼스 커리어 타운형'이다.

한편, 우리가 타운과 관련하여 대학교육행정을 바라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대학은 학문과정, 현장 테마과정, 문화생활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생 입학 연령은 지금보다 조금 하향 쪽으로 운영하게 되거나 연령 제한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간다. 동시에 16년(6-3-3-4)이라는 교육기간에서 모든 학생이 동시에 함께 수료 기간을 맞추는 그러한 대학교육은 지양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금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타운에서 보내게 된다.

### 1) 주택공간 설계에서 기숙공간 설계

기숙공간과 주택공간의 차이를 보면 하나는 공동생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생활 공간이다.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단위공간에서 형성되는 소형 그룹이 그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관리하고 그 속에서 마치 가족처럼 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택을 대학 기숙사 공간처럼 이용하려면 학생들의 타운생활의 공통테마를 다룰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통테마에 대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 설계를 해야한다. 예를 들면, 의식주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토론 및 연구발표를 할 수 있는 홀(hall)로 설계한다.

### 2) 교회 공간 설계에서 봉사활동 공간 설계

교회 공간은 비교적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시간에는 대부분 봉사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봉사활동 공간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개공간이고 만남의 공간이다. 동시에 쉬지않고 이러한 중개역할을 확대해나아가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특정 지역의 공간을 계속 확대시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 이동되는 공간이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누구든지 가능한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 분산시킨 소규모의 집단들이 모이는 공간을 설계 한다.


### 3) 대학시장 공간설계에서 브랜드자산 공간설계

'학교 앞'이라는 브랜드는 졸업식 때 입학식 때에 크게 그 영향력을 과시한다. '꽃다발'은 학교 졸업식의 브랜드이다. 이처럼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을 구축해주는 브랜드자산을 관리하는 공간을 설계한다. 이 공간은 대학캠퍼스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운에 있다. '학교 앞'이라는 막연한 이름 뒤에는 어느 공간도 모두 대학가를 둘러싼 타운공간으로서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해 주는 브랜드 자산공간임에 틀림없다. 특정 브랜드를 가진 꽃집도, 특정 브랜드를 가진 중국집도 대학 주변 공간으로서의 타운은 대학인력시장을 브랜드 하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있다.



## V. 맺음말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 주변 타운의 브랜드 자산 관리에 달려있다. 따라서 '캠퍼스 커리어 타운' 가운데 위 3가지 공간만을 예로 통합설계를 하면, 하나의 타운이 형성되면서 막강한 경쟁력을 대학 캠퍼스에 발휘할 것이다.

즉, 공동테마를 위한 세미나 타운 및 컨퍼런스 타운, 여러 지역에 분산시킨 소규모 집단 타운, 특정 브랜드를 가진 다양한 타운 등은 대학인력시장을 브랜드 하는 타운으로 설계되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호진(편, 2001). 『지식혁명시대의 교육과 대학』. 서울 : 박영사.
- 매일ECONOMY(편, 2003). "2003 대예측".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이석우(1999). 『대학의 역사』. 서울 : 한길사.
- Aaker, David A. (1996). *Building Strong Brands*. New York : The Free Press.
- DeMarco, Tom & Lister, Timothy (1999). *Peopleware*. New York : Dorset House Publishing Co. / 박승범(2003). 『피플웨어』.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 Drucker, Peter F. (1999).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 Harvard Business,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 Drucker, Peter F. (2002).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New York : Truman Talley

Books, St. Martin's Press. / 이재규(옮김, 2002). 『Next Society』.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Fishburn, Dudley (편, 2003). *The World in 2003*. London : Newspaper Limited. / 한국경제신문(옮김, 2003). 『세계대전망』.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Gibbs, Paul & Kanpp, Michael (2002). *Marketing Higher and Further Education*. London : Kogan Page.

Light, Richard J. (2001). *Making The Most of College Students Speak Their Mind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Reich, Robert B. (2002). *I'll Be Short*. / 김병두(옮김, 2003). 『미래를 위한 약속』. 서울 : 김영사.

### 유향산

이화여대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교육시설행정 및 경영을 전공하여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로서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장, 한국 매그넷프로그램시설연구개발학회 대표직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경제적 교육공간과 시설, 설비, 「연계적 교육행정. 경영. 장학행위」, "The Magnet Teaching/Learning Methodolgy as an Eco-System Process", "TI-92 Graphic Calculator의 활용목적 및 실험개발", "Building's Leadership(BL) for Educational Programs" 등이 있다.